

IMTV 제공

금월도(錦月島)

4부

녹각목걸이



S#1. 회상 / 소형 어선 / N

칠흙같은 어둠. 폭풍경보로 섬마다 사이렌이 울리고.

황씨 NAR.

‘그 애가 섬을 떠난 날도 만월이 뜨기 바로 전이었지.’

망망대해엔 황씨가 모는 배 한 척만 떠 있을 뿐,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
세찬 바람으로 파도가 집어삼킬 듯한 바다.
어디선가 등대 불빛이 보이긴 하지만 험사리 닿지 않는다.

배를 어루만지며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파도로 넘실대는 바다를
보고 있는 민숙. 그런 민숙을 황씨가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황씨

차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 배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민숙

아저씨, 저... 무서워요.

황씨

나도 무섭구나. 널 물으로 데려다는 주지만.
곧 만월 아니냐. ‘그분’이 노하시진 않을지...

민숙

(단호) ‘그분’은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걱정되고, 혼자 잘살 수 있을까가 두려울 뿐이지.
차라리 (슬픈 얼굴) 이 바다에 죽어버리면 엄마도 저도 편하지
않을까요?

민숙의 말에 황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황씨

쓸데없는 소리! 화 입을 걸 각오하고 촌주님은 널 위해서...

민숙

알아요. 아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겹게 미소짓는 민숙. 집어삼킬 듯 높은 파도. 급기야 쏟아지는 비.

(Cut to)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

신열이 나는 민숙을 빗속에 버려두고 떠나가는 황씨.

눈물을 흘리며 비를 피할 만한 외진 곳을 찾아가는 민숙

인우(E)

그렇게 네 엄마를 포구에 두고 오셨대. 그 후 살았는지

S#2. 인우 배 안 / N

인우

(대사 이어서) 죽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네가
나타난 거야 이 섬에... 황씨 아저씨 말은 그래.

그러니까, 촌주님이...너한테는 할머니구나
할머니가 네 엄마를 죽일 리 없잖아.

갑판에서 인우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리영,
포르르 눈물 한 방울. 손으로 대충 눈물을 훔치더니 조타실 안으로 들어간다.

S#3. 조타실 안 / N

웅크리고 앉아 얼굴을 파묻고 있는 수리영.

다가와 살며시 옆에 앉는 인우다. 복잡한 표정이다.

수리영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디있는 거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수리영 눈에 조타실 바닥에 ‘원’이 그려져 있는 작은 박스가 눈에 들어온다.
인우가 잠시 나간 사이, 수리영 무심코 박스를 열어보는데..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
다. 헐! 전원을 켜니 인우가 저장해 놓은 기사가 주르륵 뜬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수리영.

‘강력사건 또 발생. 강00는 사체로 발견되고
대학생 딸도 실종상태...경기도 시흥시 초비상!!!’

핸드폰이 수리영 손에서 툭 떨어지고...

상황을 모르고 닳줄을 풀고 배 띄울 준비를 마친 인우,
조탁실에 들어오며,

인우

바람이나 쐬러 갈래?

노려보는 수리영, 바닥에 떨어진 폰을 보고 놀라는 인우,

수리영

이거 뭐야!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죽인 거 혹시 너니?!

인우

(당황) 아냐! 그건 절대 아냐!

수리영

넌 마음만 먹으면 도시를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

언제 부터였니? 우리 엄마를 노린 게.

인우 고개를 흔들며, 배에 내려 첨병첨병 떠나려는 수리영을 달려가 붙잡는다.

인우

내가 다 설명할게. 진정해

수리영

이 손 놔. 놓으란 말야. 이 나쁜 새끼!

인우

(수리영의 어깨를 돌려세우며) 진짜 아냐.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저 촌주님 시키는 일만 해. 물에 나가 물건을 사오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섬에 살지만 나도 너처럼 외지인이야.

왠지 거짓말 같지않은. 분노가 흔들리는 수리영 주저앉는다.

인우

나도 그거 보고 알았어. 네 엄마가 죽은 거. 진짜야.

S#4. 금월도 / 새벽녘

어둠이 채가지지 않은 새벽녘.

짙은 안개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S#5. 식당 안 / 새벽녘

어두컴컴한 텅 빈 식당.

홀로 앉아있는 누군가.(L.S + T.S) 수리영이다.

꼬박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에 눈빛만 형형하다.

(E)

(성인남성) 살려주세요. 아아악-

S#6. 육지 변화가 / 새벽녘

미명의 새벽, 잠들어있던 도시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각.

자욱한 안개가 을씨년스럽다.

후미진 골목.

준수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순식간에 젊은 남자 목을 물고

쏟구쳐나오는 피, 힘줄이 솟은 강인한 손이 남자의 뒷목을 잡는다.

붉은 눈동자로 변한 준수, 각-! 흡혈하면서 살점을 뜯어먹는다.

S#7. 단란주점 밖 + 룸 안 / 새벽녘

허름한 간판, 고장이 났는지 불이 들어왔다 나가길 반복.

흥얼거리며 계단을 어기적 어기적 내려가는 진성과 현재.

룸 안. 어지럽게 흩어져있는 주사바늘,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스키 병들 pan 소파에 누운 여자는

약에 취해 해롱거리고. 우적우적... 물어뜯는 소리.

다른 소파에 자고 있는 옷통 벗은 남자를 물어뜯고 있다.

뚝뚝 떨어지는 피, 진성과 현재가 피를 빨고 살점을 물어뜯는데 여념없다.

붉은색을 띠는 눈동자들...

S#8. 선착장 / D

배안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준수. 갑판에는 준수가 가져와 실은

검정비닐 포대자루 두 개가 보인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그런데 다른 한 포대는 사람이 들어있는지 신음소리와 함께 꿈틀꿈틀!

콧노래를 부르며 비닐포대기를 안보이게 덮어버리는 준수.

준수 눈에 멀리 현재와 진성이 포대 자루를 메고 바삐 걸어오는 게 보인다
얼굴에 희색이 감돌며 의기양양한 모습.
배에 짐을 던지고 곧바로 타는데...
마치 새벽에 일나온 막노동꾼처럼 보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준수

빨리 타, 새끼들아.

S#9. 배 안 / D

망망대해, 포대자루를 커다란 드럼통에 넣는 준수,
젊은 여자 세 명은 비닐 백에 얼굴은 드러낸 채로 묶여있다.
잔뜩 겁에 질린. 입에 테이프가 붙여져 소리도 못 지르고

준수가 하나 남은 포대자루를 드럼통에 넣으려 하자.

진성

잠깐! (몸을 날려 포대자루를 낚아챈다)

포대자루를 풀어 물건을 꺼내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팔과 다리다.
나오는 대로 쪽쪽 바다에 확- 확- 던져버리는데..
급기야 으깨지고 살점이 너덜너덜한 머리가 여자들 발밑으로 떼구르르-
질겁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여자들.
포대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낸 진성, 양주병을 병째 벌컥벌컥 마신다.

현재

존나 웃긴 새끼네. (진성이 머리를 바다에 던지려하자)
야!머린 안 돼.! 둥둥 떠다니다 걸리면... (목을 긁는 시늉)

진성

아이 씨발, ...할망구는 도대체 언제 처리할꺼야!

준수

산들이가 만월제까진 기다리랬잖아. 새끼! 와서 이거나 들어
(진성과 드럼통을 함께 바다에 버린다)

S#10. 바다 속 / D

바닷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드럼통. 그 옆으로 헤엄쳐 다니는 고기떼

그중 한 마리가 미끼를 문다.
버둥거리며 낚싯줄에 따라 올라가는 물고기.

S#11. 금월도 해안가 / D

물고기를 건져 올린 건 산들이다. 낚시꾼(1부 등장) 바다 낚시를 즐긴다.
잡힌 고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산들.

수리영(E)

저... 미끼였더라고요.

S#12. 영란 방안 / D

영란과 마주앉는 수리영, 나무 소반에 석창포를 우린 차가 놓여있다.

영란

(미간이 흔들리며) 미끼?

수리영

엄마를 죽여 절 섬으로 유인한 거죠.

영란

제법이구나.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한단 말이나?

수리영

이제부터 알아보려구요.

나를 데려와 할머니가 고통받길 원하는 누군가겠죠.

(석창포 물을 손으로 짖어 원을 그리며) 이 마을의 표시죠?

영란

그렇다.

수리영

그러니까요. 시신 옆에 이 표식을 남겼어요. 범인이.

누군가 둘의 얘기를 엿듣는 거 같은 인기척을 느끼는 영란.

영란

(문을 확 열어제끼며) 누구냐? (없다)

애야... 그냥 물으로 가라... 더 이상 엿이지 말고.

수리영

제가 가면요? 할머니는 괜찮으시겠어요? 미끼를 풀어줬는데!

그리고... 엄마를 죽인 놈이 물에 있다고 저는 내버려 둘까요?

영란

(수리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 넌, 그놈이 누구인지
알아도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없을 거다. 그러니 내 말대로ㅠ
해라 (일어난다)

수리영

(등뒤에 대고) 네? 왜요? 제가 어려서요? 아님 여자라서?

영란

(돌아서 내려다보며) 넌 무기가 없잖니?
녹각목걸이 말이다.

녹각 목걸이? 망연자실한 수리영.

[F.B: 3부 27썸]

무당 신씨, 수리영의 어깨 문신을 보며 ‘어디 두었니? 녹각 목걸이 말이
다....가라. 가서 목걸이를 찾아라!’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의아한 수리영.

S#13. 마당 + 수리영 방 안 / D

서둘러 자기 방안으로 들어와 백팩을 뒤지는데...
달려있어야 할 인형은 없고 덩그러니 고리만 매달려 있다.
헉! 누군가 분명히 인형을 고의로 가져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어디지...’ 기억을 더듬는 수리영.

[F.B: 1부 16썸]

백팩에 메단 키링 인형. 보폭에 맞춰 달랑거리고.

금월도에 오던 날, 배 안에서 있을 때까지 분명히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인우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수리영.
가방 안에서 폰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방을 나가는 수리영.
인우의 배가 정박하는 선착장을 향해 달린다.
달리며 회상하는...

S#14. 회상 / 실내

지난해 수리영 생일날, 성년이 된 수리영에게 민숙이 녹색 목걸이를 풀어
예쁜 인형(가방을 멘)과 함께 선물로 줬다.

수리영

신기하다 ‘진짜 이게 사슴뿔이야? 귀엽네.

혜수와 수리영이 녹색 목걸이와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주고받는다.
민숙이 웃으며 선물한 인형 가방 안에 잘 챙겨 넣는다.

S#15. 배 안 / D

숨을 헐떡이며 선착장에 당도한 수리영.
다행히 인우의 배가 밧줄로 묶여있다.
갑판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인형은 어디에도 없다.
흠뻑리던 비가 점점 굵어진다.
배 안에서 나와 해안을 살피며 걸어가는 수리영.

S#16. 해안가 / D

해안가에 정박한 배 안에 낚시꾼들과 여자 2명. 준수, 현재,
산들이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외면하며 지나가는 수리영을 뺨히 쳐다보는 산들.
저 멀리 인우가 수리영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핏발선 두 눈의 산들. 칼로 물고기의 머리를 찍! 찍는다.

S#17. 영란 집 / D

신이 홀로 멍하니 솔 앞에 앉아 있다. 솔 옆에는 말린 석창포 뿌리가
놓여있는 채반이 있고, 솔 안에는 물이 팔팔 끓고 있다.
말린 석창포를 한 움큼 솔에 넣고 한숨 짓는 신이.
삐그덕 문 열리며 수리영 들어와 신이 옆에 털썩 앉는다.

신이, 젖은 수리영의 옷을 털어주며
석창포 즙 대접 한 사발을 건넨다.

신이

마, 마셔.

수리영

(짹그리며 바라볼 뿐... 마시지않고) 아줌마,

혹시 제 가방에 달린 작은 인형 못 봤어요?

신이

(고개 가로젓고)...너. 님았어. 미~ 민숙이 언니랑.

수리영

우리 엄마 죽었어요.

신이

뭐?! 진짜야? (두려움이 스친다) 촌주님이 뭐라 해도 가지마.
나 무서워.

수리영

네?!

신의 흉터를 바라보며 심각해지는 수리영. ‘뭘 두려워하는 걸까?’

S#18. 금월도 바다 몽타주 / 해질 무렵

비는 소강상태. 잔뜩 낀 구름 제법 차오른 달이 휘영청 긴 그림자를
바다에 드리운다. 파도에 흔들리는 산들의 낙싯배. 낙시꾼은 보이지 않고.
대신 라면을 끓여 먹었던 코펠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만 덩그러니 바위
위에 있다. 불어터진 라면이 담긴 그릇.
그릇에 떨어지는 빗방울

S#19. 해안가 어느 일각 / 해질 무렵

다시 비가 내리고. 빗물로 흥건한 땅에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낙시꾼1.
잔인하게 물어뜯긴 목덜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낙시꾼1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진다. 한 손으로 목덜미 상처를 막아보려 하지만 손 틈 사이로 핏물이 흘러
내린다. 어디선가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겁에 질린 낙시꾼은 다리를 끌며 좀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

S#20. 움막 / 해질 무렵

그 시각. 움막 안을 뒤지는 수리영. 인형을 찾아보지만 없고
밖으로 나와 보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도축장으로 보이는 가건물이 하나 보인다.
혹시?

S#21. 도축장 / 해질 무렵

도축장 문고리를 잡는 수리영 손. 스르르 열리는 문.
어두컴컴한 도축장,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벽에 걸려있는 손전등을 찾아

비춘다. 도축한 흔적들로 보이는 칼과 도마, 갈고리와 핏자국들.
비릿한 피 냄새에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는 수리영.
*2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캐비닛과 창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수리영의 눈에 캐비닛 하나가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열어보는데 아뿔사! 그 캐비닛 안에 귀통이에 인형이 있다.
얼른 인형을 집어 들고 인형이 맨 가방 안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다시 캐비닛을 열어보고, 캐비닛 위, 아래에 손으로 더듬어 목걸이를
찾지만 없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 소리에 움직임을 멈추는 수리영.
잔뜩 긴장한 채로 문을 향해 서서히 다가간다. 문틈을 보는데

낙시꾼1(E)

살...려...주.....세요. (몽둥이로 내리치는 모습) 헉!

문틈으로 보며 놀라는 수리영의 눈이 커지며...

S#22. 도축장 안 / 실내

폭 쓰러진 낙시꾼1에 놀라 기겁하는 수리영.
그때 갑자기 환한 손전등 빛과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준수(E)

멀리도 간다, ㅎㅎ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낙시꾼1(E)

아아아악!!!

수리영이 갑자기 울려 퍼지는 비명에 놀라 뒷걸음질 치며,
인형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급히 숨을 곳을 찾는다.

S#23. 영란의 집 인근 / 해질 무렵

영란과 신이. 좀처럼 수리영을 찾지 못하는데.

영란

이 근방에는 없는 거 같으니 흩어져서 찾아야겠다.

신이

(고개만 끄덕)

각기 다른 골목으로 흩어지는 영란과 신이.

S#24. 도축장 안 / N

낙시꾼1의 시체를 질질 끌고 도축장 안으로
들어온다. 여유롭게 휘파람까지 부는 무리들. 준수와 현재다.

/쪽방 안

어두운 공간. 문 귀퉁이에 손바닥 만한 구멍이 보인다.
구석에 앉아 입을 틀어막고 있는 수리영.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안으로 들어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무리들.

준수

산들이 보면 또 지랄해.

현재

알았어. 어따 치워둘까.

도축장 안을 둘러보는 현재. 쪽방을 뒤질까봐 바들바들 떠는 수리영
확! 쪽방 문이 열린다.

/쪽방 안

문이 열리고 무언가 툭 던져진다.
목과 얼굴이 잔뜩 짓이겨진 시신(낙시꾼1)이다
벽 쪽에 붙어 서 있던 수리영, 내려다보는데...
눈뜨고 죽은 낙시꾼 얼굴.

수리영

(입을 틀어막으며) 헉!!!

도축장 안에서 낙시꾼1이 흘린 바닥의 피를 입술로 핥으며 킬킬대고.

준수

아 그만해. 미친 새끼.

현재

딴 놈들은?

준수

잘 보관했지. 만월제에 써야 잤아!

끼이익~ 문 열고 산들이 들어온다. 여기저기 핏자국을 보더니

산들

여기서 하지 말랬지! 나가 새끼들아!

현재

(다가와) 그러지 말고 산들아, 우리 나가자.

너 며칠 굶었잖아. 파도도 안 높고, 오늘 밤 괜찮은데 흐흐

산들

(노려볼 뿐...)

현재

왜? 알았어. 새끼 노려보는 눈깔하곤.

준수

그러지 말고 그년, 촌주님 집에 묶는 그년. 그년이나
(목을 핏는 시늉하면서) 오늘 밤에. 어때?

/쪽방 안

‘날?’ 눈동자가 커지는 수리영, 슬그머니 구멍으로 누군지 보는데.

산들

아무 데나 빨대 꽂지 마. 새끼들아! 꺼져!

살벌한 반응에 놀란 현재와 준수 툭툭거리며 허겁지겁 나간다.

S#25. 쪽방 안 / N

조용해진 쪽방 안. 소름 끼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낙시꾼1의 눈. 목덜미, 흐르는 피. 소름 끼치는 상황.
목이 타는지 몹시 고통스러운데...

수리영의 눈동자가 서서히 황금색으로 변한다.
자신도 모르게 목덜미를 향해 얼굴을 가져가는 수리영.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인의 목소리가 환각처럼 반복해서 들린다,

여인의 목소리(E)

‘아, 갈증난다. 어서 목을 축여, 목을 축이라고!’

피가 흐르는 뉘시꾼1의 목에 입을 가져다 순간 ‘흐읍-’
눈을 번쩍 뜨며 기겁하며 뒤로 주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S#26. 도축장 인근 밖 / N

수리영을 찾아다니던 영란과 신이,
각각 헤어져 찾아보기로 하고
영란, 산길을 걷다 도축장을 힐끗 본다.
도축장을 문을 열려하는데 안에서 잠겨 있다.

영란

누가 있느냐?

문을 열고 나오는 산들이 뼈뺀 시선으로 영란을 본다.
산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영란.

S#27. 도축장 안 / N

산들

(둘러보는 영란에게) 손녀 딸 찾으세요? ㅎㅎ

영란

(노려본다) 뭐야!

산들

(느물거리며) 손녀 딸 아닌가.... 하긴 인정하시기도 그럴겠네.
20년 전에 촌주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마을에 알려지면...
ㅎㅎ. 그건 안 되는일이 잦아요. 그쵸? 규율 위반!

주먹을 짹 쥐고 부들부들 떠는 영란, 획 돌아서는데

산들

(등 뒤에 대고) 그 애 나한테 주는 거 어때요?

영란

뭐라?!

문을 짱! 닫고 나가버리는 영란. 눈빛이 매섭다!
인상을 쓰며 들고 있던 도축용 칼을 던진다, 팍! 벽에 꽂히는 칼.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따라 나가는 산들.

쪽방 구멍에 보이는 수리영 눈동자.

S#28. 쪽방 안 / N

산들과 영란의 애길 모두 들은 수리영.
도축장 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다
얼결에 손이 뜯긴 시신 상처를 헤집는다.
악! 놀라 주저앉다가 인형을 짓누른다. 인형에서 들리는 소리.

산들(E)

그러게. 왜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쳤어?

놀라서 인형 꺼내 다시 눌러보는

산들(E)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민숙(E)

산들아... 아아아악!

분노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수리영의 표정에서.

4부 END